

독일 태권도 대표도 청각장애우도 사찰로

금산사·우리는선우·송광사·포교사단·연화원 이색수련회 '눈길'

여름을 맞아 곳곳에서 수련회가 열리는 요즘, 김제 금산사 등 호남지역 사찰에서 이색수련회가 잇따라 열려 눈길을 끈다.

김제 금산사 주지 원행에서는 8월 8~10일 독일 청소년태권도 대표단(감독 홀거 분더리히) 20여 명이 불교문화체험을 했다.

독일 선수단은 숲 속에서의 명상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새벽예불과 맨발 걷기명상, 다도, 발우공양 등 불교문화를 경험했다. 또, 태권도 수련, 수벽치기를 관하며 태권도의 본고장 한국의 전통무예를 익혔다.

쾰리야 바란스키(17)는 "태권도의 본고장인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 가부좌를 틀고 앉는 것이 가장 곤혹스러웠지만 발우공양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주 우리는선우**(회장 오종근)와 **원주 송광사 청년회**는 6~7일 전주 송전정보통신학교(구 소년원)에서 2009년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비행청소년 교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47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입제식에 이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108참회, 자비명상과 선체



8월 8~10일 김제 금산사를 찾은 독일 청소년 태권도 대표단이 발우공양하고 있다.



사회복지원 연화원이 8월 7~9일 정읍 내장사에서 개최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여름수련회.

조, 찬불가 배우기, 불교문화 이해하기, 불교관련 영화감상, <부모은중경>을 통한 부모님에 대한 감사편지 쓰기와 서로 마음을 열고 이해하는 즐거운 오화시간이 펼쳐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구나", "~겠지", "~감사하겠다"를 채우는 간단한 3줄 발언시간에 큰 호응을 보이며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성훈(가명·18)군은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분이 없다면, 저 분의 마음이 우리 엄마마음이겠지, 감사하구나 우리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정수철(가명·17)군은 "우리와 합

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신경써주시는 여러 불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전주 송전정보통신학교는 120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수송대 중학교 교정을 배우며 지난날을 참회하고 범죄의 손길에서 벗어나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교정교화1회(팀장 송영기 포교사도 10~11일 광주고통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 종교실 법당에서 원생 15명과 교정교화 포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불교교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포교사단 포교사들의 지도로 한글 <전수경> 독송과 참선, 불교 기초교리강의, 신행상단, 찬불가 연습과 사경, 108참회 정진, 영화 보기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언 포교사는 "허구한 욕망에 빠져 진실한 자기자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원생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일반 가정과 사회에 안착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광주고통정보산업학교는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들을 수용해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건축환경설비, 중장비

운전, 자동화용접 등 기능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전문 소년원이다. 광주 지역단 포교사들은 96년 소년원 출범 당시부터 14년 동안 법회를 비롯해 여름과 겨울 불교학교 개최해 왔다.

사회복지원 연화원(원장 해성은 7~9일 정읍 고내장사(주지 진공)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37명의 청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내장사·백양사 참배, 예불, 탑돌이, 108참회, 발우공양, 수화 찬불가 부르기, 티볼, 팔상성도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자신의 신체적 장애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장애가 되는지, 그 장애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토론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해성 스님은 "청각장애인들이 대중생활을 통해 도움을 주는 불제자로 자립하는 계기를 갖게 하고자 수련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복지회장 한영진(36·서울 남파동)씨는 "농아인들은 보고 들을 수 없어 불교에 대해 너무 궁금해 하던 차에 이런 행사를 열어 줘 고맙다"고 말했다.

조계종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처님 가르침 봉사로 사회 회향"

매월 4째주 일요일이면 전북 임실 제6탄약장 호국장영사를 찾는 장병들은 하나같이 들뜬 표정이 역력하다. '떡볶이 보살님'들이 방문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떡볶이 보살님들의 정제는 위봉사 관음회 회원들. 그들은 호국장영사를 방문할 때마다 신세대 장병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푸짐하게 준비해온다.

위봉사 관음회를 이끌고 있는 박순자(62·연화심·사진회장은 이날도 자장면을 준비해 장병들의 기대에 화답했다

관음회는 1999년에 창립돼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애초에 위봉사 선원의 스님들과 제방의 선원에 대중공양을 위한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로 매 안거마다 제방선원의 수좌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해왔다.

한편으로는 독거노인과 소년 소년 가정들을 보살피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관음회가 군부대와 인연을 맺은 것은 5년전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당시 관음회는 불자장병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던 이성강 포교사를 통해 불자장병 200명에게 떡볶이를 제공했다.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장병들의 모습을 보고 회원 모두가 군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위봉사 관음회의 활동에서 군부대 방문이 빠질 수 없었죠."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연화심 보살은 군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3일전부터 회원들과 함께 준비에 나선다. 떡볶이를 비

롯해 자장면, 비빔국수, 냉면, 토스트, 감자전, 떡국 등의 메뉴가 정해지면 회원들과 함께 장을 보고 손수 준비해 장병들에게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관음회의 활동에는 위봉사 주지 법중 스님의 후원 또한 큰 힘이 되고 있다.

반향반향을 실천하는 위봉사의 특성상 대중들이 소비하는 모든 식재료를 지급하는 위봉사의 제마발을 돌보는 것도 신도와 관음회의 몫이다.

여기서 생산된 채소는 위봉사 대중 뿐만 아니라 정진단체 수용시설인 송광사 정심원, 인근 복지원, 불교회관의 경로식당에도 후원되고 있다.

관음회원들이 적극적인 봉사 활동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위봉사 법중 스님의 이같은 실천하는 행에서 비롯된 위봉사만의 기풍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음회가 모범적인 익산지역 신행단체로 인정받는 이유는 이외에도 회원들의 자발적인 보시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회원 가족, 거사님들도 자발적으로 함께 봉사활동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거사들은 봉사현장에 갈 때마다 운전은 물론 설거지는 의례 거사들의 몫일 정도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장병들의 모습을 보고 회원 모두가 군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위봉사 관음회의 활동에서 군부대 방문이 빠질 수 없었죠."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연화심 보살은 "활기찬 병사들의 표정에서 위안을 삼는다"고 말했다. 조계종 전북지사장



산사음악회에서 문화운동으로 무등산풍경소리 7주년 기념 콘서트 열어

종교와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은 음악회 '무등산 풍경소리'가 7주년 기념 공연을 가졌다.

무등산풍경소리(이사장 지장)는 8월 8일 광주 증심사 취백루에서 '무등산 풍경소리 7주년 기념 피아노와 이빨 율호간 콘서트'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하우스 합창팀의 수트 케이스 공연을 시작으로 무등산풍경소리 음악회의 기록을 담은 7주년 기념 영상 상영이 펼쳐졌다. 공연 도중 손세실리아의 시낭송이 이어지고 아름다운재단의 '참 좋은 나눔연주자' 제1호이자 피아노공연의 고정관념을 깬 피아니스트 윤

호간의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에 앞서 지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무등(無等)은 차별이 없다는 뜻"이라며 "풍경소리를 단순한 산사음악회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을 차별없이 대하고 생명과 환경을 사랑하는 문화운동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무등산 풍경소리'는 지난 2002년 7월 무등산 증심사에서 작은 무대를 만든 것이 계기가 돼 지금까지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풍경소리는 다같이 무등산 자락 증심사 앞마당에서 생명사랑과 환경보전을 노래하고 얘기하는 마당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종교차별' 강좌 8월 22~23일

광주전남지역에서 종교차별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한 강좌가 열린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은)는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전우회)와 공동으로 8월 22~23일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관에서 광주전남지역 사찰 및 신행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강좌를 실시한다.

강좌는 지역내 불교 호법전 문화동가 40여 명을 양성하고 조직화 하기 위해 실시된다. (062)376-322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최초 전통 구조 가람 탄생 증심사 사천왕문 복원불사 상량

광주지역 전통사찰 중 최초로 전통적 사찰구조(일주문-사천왕문-누각-대웅전을 갖춘 가람)가 탄생했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지장)는 8월 6일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증심사 사천왕문 복원불사 상량식을 봉행했다.

증심사 사천왕문은 1609년에 세워져 정문누각 취백루 1층에 사천왕 4기가 봉안돼 있었으나, 한국전쟁때 화재로 소실됐다. 상량식을 가진 사천왕문은 1998년 복원된 취백루에 이은 불사로 국비 5억원과 사찰부담 6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형태를 갖췄다.

지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 지역에 전통적 사천왕문이 있는 사찰이 없었으나 이번 사업은 민족사의 유려곡절과 함께 사라진 사천왕문을 복원한데 의미가 있다"며 "전통사찰의 사격을 제대로 갖추게 되어 지역민들에게는 문화적 자부심을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천왕문은 인간의 선악을 관찰하고 수행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불국정토의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지극천왕, 광목천왕, 증장천왕, 다문천왕 등 사천왕상이 봉안돼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전

부상감청자투각佛 법륜대(운장대) 완결봉안 해

동참접수 : 2009년 5월~ 9월 5일 | 정안식 : 2009년 9월 6일(일) 오전 10시 50분
 도동산 성불사 ☎ 954-9848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시 청어 합장 =

실용신안특허허가기술

복장용 소경책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증생구제와 증생불사의 사원을 이루소서

□ 제품명 : 순금천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림청자
 □ 높 이 : 110cm
 □ 원통폭 : 45cm
 □ 밑반폭 : 30cm
 □ 무 게 : 25kg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현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 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형 소법문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증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역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